

전남도 10월까지 의대 설립 대학 선정

12일 김영록 지사·목포대·목포시장·순천대·순천시시장 회동 제안 지역별 의견 최대한 수렴...“용역기관 선정 전 각계 인사 만날 예정”

전남도가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시장 등에게 오는 12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첫 회동을 갖자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자체 공모를 통해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에 이들 모두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용역기관 선정, 전문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마련 등 본격적인 절차를 앞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목포대·순천대의 대학 총장, 목포·순천시시장 등 지역 대표 인사, 전문가, 각계 인사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전남도가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시장 등에게 오는 12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첫 회동을 갖자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자체 공모를 통해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에 이들 모두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용역기관 선정, 전문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마련 등 본격적인 절차를 앞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목포대·순천대의 대학 총장, 목포·순천시시장 등 지역 대표 인사, 전문가, 각계 인사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6일 "지난 3일 목포대, 순천대, 목포시, 순천시에서 공문을 보내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관련 합리적 방안 논의를 위한 5차 공동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제안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양측의 공모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원칙을 밝힌 상황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이번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 조만간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전문가위원회·사전심사위원회·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용역기관 선정 1개월, 용역 수행 최대 5개월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늦어도 10월까지 전남도가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동간담회는 목포와 순천의 중간지역인 보성군청으로 정했다.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선정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공모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5일 목포대 총장·목포시장·목포시의회 의장, 16일 전남도의회 의장단, 18일 순천대 총장·순천시시장·순천시의회 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지난 1일에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문을 보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고, 늦어도 9~10월께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각 대학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반영해 확정하는 대입전형시험 계획 마련 과정에서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이 배정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등은 공모 없이 전남도가 자체 판단으로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노관규 순천시시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전남지사는 의대 설립과 관련해 법적 공모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모 방침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울 어업인 안전·풍어 기원

완도 어선안전 기원 풍어제 참석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2024년 완도 어선안전 기원 풍어제 행사'에 참석해 울 한 해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무사 안녕, 풍어와 만선을 기원했다. 이날 풍어제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자, 신우철 완도군수, 허국희 완도군의회 의장, 완도지역 어선협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정해진 열두군고전집연구회의 풍물공연, 연안 어장 자원 조성을 위해 완도지역 어선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어민 감성동 1만 마리를 방류 행사를 진행했다.

김영록 지사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어업기반 조성 등에 힘을 기울여"라며 "풍어와 만선의 기쁨을 바라는"

풍어제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축하했다.

이어 "전남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도록 친환경 인증 지원 및 수산물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 마련 등에 집중, 미래 수산업을 선도하겠다"며 "또한 현재 예타 추진 중인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완도가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어선어업의 안전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인양기, 부잔교 설치, 어선 노후장비 교체, 어선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어구 보급, 어구 보증금제 시행 등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년후 노동인구 1천만명 줄어든다

2050년 인구 40%가 65세 이상

2060년 사망자 수, 출생아 5배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000만명 줄어든다. 저출생 여파로 206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 가량 많아진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2024년 인구조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초등교육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 난다. 병력 지원도 급감한다. 신규 현역 임명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줄어 20만명 선이 붕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국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천명)의 4.8배가 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59만명이 자연 감소하게 된다. 2023년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849만명)로 늘어난다. 한국 총인구는 작년 기준 5171만명에서 2065년 3969만명으로 감소해 3000명대를 기록하게 된다.

/연합뉴스

교육부, 전국 의대 '유급방지책' 등 방안 요청

대학들 학년제 전환 등 논의할 듯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3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등을 내도록 했다.

그러면서 학사운영 방안의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은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가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을 한다.

/연합뉴스



임상중 환경부 차관이 지난3일 무등산 평두메습지(화양동 530번지 일원)를 방문하여 현장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에는 문인 북구청장 등 6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경과 및 평두메습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장등동 일원의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사업 등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광주 북구청제공>

무등산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순항...환경차관 현장 방문

추진상황 점검...정부 지원 약속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순항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임상중 환경부 차관은 지난 3일 평두메습지 실태와 람사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람사르협약 사무국(스위스 글랑)에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인정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북구, 무등산국립공원공

단과 협력해 평두메습지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건의한 상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북구 화양동 530 등 14필지/2만2600㎡)는 묵논습지(오래 내 버려 두어 거칠어진 논)와 삼·담비·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식물 786종(동물 578종, 식물 208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경관·생태학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람사르사무국은 1971년 이란에서 채택된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 172개 국가 2503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국내에는 광주 장록국가습지 등 25곳이 있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시는 장록국가습지와 함께 친환경생태도시와 환경보전 도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평두메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판결 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고정865 목목

• 피고인 : 김미승

위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년 5월 1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 03. 29.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게시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7일
주식회사 수엔텍
전라남도 광양시 중앙청동길 12, 2층 (중동)
청산인 이혜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분묘개장공고대상 분묘의 개장 또는 관리는 관공인인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가 없을 시 제정된 공제금에 따라 분묘개장비용을 부담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광양시 성천면 월남리 산 162
2. 개장일자: 5/7
3. 개장사유: -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분묘의 처리
- 묘지의 용역차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영구분묘 - 영구분묘의 영구 개장
- 무분묘 - 공제금 반환 후 무분묘 분묘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비용: - 분묘개장비용 100,000원 (분묘개장비용 100,000원 포함)
6. 신고기간: 2024년 5월 20일 ~ 2024년 6월 25일 (휴일 포함)
7. 신고 및 문의처: - 공고인: 김병선
- 신고처: 광양시청법무팀 (010-3130-1740)
- 업무대행: 광양시청법무팀 (010-3130-1740)
- 전남 광양시 중앙청동길 130-1
- 광양시청법무팀 (010-3130-1740)
8. 신고서 기재사항: 영구분묘를 영구분묘로 변경, 제정된 공제금, 사실확인비용
9.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5월 7일
광양시청법무팀
광양시청법무팀 (010-3130-1740) 전담 광양시청법무팀 (010-3130-174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박배경(50312-1XXXXXX)
• 최후주속: 광주광역시 비아중앙로31번길 24, 2층 202호(비아동)
피상속인 박배경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광역시 비아중앙로31번길 24, 2층 202호(비아동)에 신청하여 2024년 4월 2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과 및 주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함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7일

• 상속인: 배종현(67020-1XXXXXX)
광주광역시 비아중앙로31번길 24, 2층 202호(비아동)

• 신고기간: 2024. 5. 7. ~ 2024. 7. 17.
• 채권신고처: 광주 서구 월드컵로152번길 18, 205호(화정동, 무진빌라)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4월 26일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사람은 본 공고게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주식회사 광스틸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암곡길 6
청산인 노 진 왕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보호공고)

서정앤에너지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영웅전력(이하 "을")은 2024년 5월 3일 개최된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여 합병 제53조(의정) 제2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신용보증)을 인정하고 "을"은 존속받은 재산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르기까지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갑” 서정앤에너지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대월2로 53, 10동 211호 (대월동, 광주산업용융유동센터)
공동대표이사 정대선
공동대표이사 서용규

“을” 주식회사 영웅전력
경상북도 영주시 봉곡로 49(삼강동)
대표이사사외이사 정일수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매매

010-3605-500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경건물
역곡,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길은 끝 72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